
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2. 4. 5.(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남균, 사무관 박지윤, 주무관 장휘량 • ☎ (044) 201-4207, 4215
보 도 일 시		2022년 4월 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6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‘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’ 추진

### - 5월부터 항공편 대폭 증편 ...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50% 회복 목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코로나-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(3.31)\*와 코로나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4.6)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%까지 회복하는 ‘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’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.

\*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'20.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, 국토부·국조실·교육부·외교부·법무부·문체부·농림부·산업부·고용부·해수부·중기부·방대본 참석

○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,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#### <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요약 >

구분	항공편 국토부 인가	인천공항 도착슬롯 확대	지방공항 국제선 정상화	항공편 탑승 제한조치 해제
현행 ('22.4~)	매월 방역당국과 정기편 증편 협의	시간당 10대 이하	김해·대구공항 국제선 운항	부정기편 1주단위 운항허가, 방역 위험도 높은 국가 탑승률 80%이하로 제한
1단계 ('22.5~)	매월 +주100회 증편	시간당 20대 이하	무안·청주·제주 김포·양양공항 국제선 재개	부정기편 허가기간 개선 (1주→2주 단위)
2단계 ('22.7~)	매월 +주300회 증편	시간당 30대 이하	운영시간 정상화	방역 위험도 높은 국가의 탑승률 제한 폐지, 부정기편 허가기간 개선 (2주→4주 단위)
3단계 (엔데믹~)	정기편 인가 <b>정상화</b>	정기편 인가 <b>정상화</b> (시간당 40대, 24시간 운영)	정기편 인가 <b>정상화</b>	없음

□ (1단계 : '22.5~6월) 먼저,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.9%로 축소\*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대폭 증편\*\*할 계획이다.

\* 코로나前 주4,714회 운항하였으나 '22.4. 현재 주420회로 운항규모 대폭 축소(▽91.1%)

\*\* '22.4월 주420회→'22.5월 주520회→'22.6월 주620회 운항 추진(그간 매월 증편규모는 약 주10회 수준)

○ 그간 코로나-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, 5월부터는 코로나-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,

○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,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,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.

○ 한편,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,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.

○ 또한, 지방공항도 세관·출입국·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\*를 대상으로 5월 무안·청주·제주공항, 6월 김포·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.


\* 국내 입국일 기준, 세계보건기구(WHO) 긴급승인 백신 2차접종 후(얀센1회)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(세부내용은 최신 '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' 참고)

□ (2단계 : '22.7~엔데믹)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, '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\*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%로 설정하고,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증편\*\*할 예정이다.

\* (여객수요) 전세계 83%, 아시아 40% 회복(IATA), 인천공항 54~35% 회복(인천공항공사) / (항공사 수요) 주2,641회(국토부)

\*\* '22.6월 주620회→'22.7월 주920회→'22.8월 주1,220회→... →'22.10월 주1,820회→'22.11월~ 주2,420회('19년말 대비 51%)

-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,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.
- (3단계 : 엔데믹 이후) 코로나-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.
  -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-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·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,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.
-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“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·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”고 말하면서
  - “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‘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’ 인만큼,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 덧붙였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박지윤 사무관(☎ 044-201-42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